청정海의 부산

BUSAN TRADE NEWSLETTER

2018
07

2018년 7월호 부산통상소식지 / 발행처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 발행일 07.09(월)

CONTENTS

03 _ TRADE INDEX _ 부산시 수출동향

04 _ OVERSEAS MARKET _ 해외시장정보

08 _ TRADE INFO _ 통상정보
- 참여기업 모집 안내(8월)
- 2018 동남아 바이어 초청 상담회
- 2018 남미 무역사절단 파견
- 아시아 비즈니스 스쿨 운영
- 「GTI 제6차 지방협력위원회」참가
- 2018 아프리카 유통망진출 지원사업
- 베트남 유통MD 교류회 개최
- FTA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교육
- 2018 대학생 무역캠프(부산)

10 _ TRADE NEWS _ 6월 행사
- 동남권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
- 부산 중소벤처기업 CIS 무역사절단 파견
- 2018년 중국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참가
- 美, 이란 무역제재 관련 설명회

11 _ COMPANY STORY _ 수출 우수사례
- (주)코노텍, (주)엘리온

총 괄

5월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9% 증가한 12억 3,100만 달러 기록. 품목별로는 승용차(-6.2%), 자동차부품(-6.9%)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아연도강판(3.1%), 원동기(48.1%) 등의 수출은 증가
대륙별로는 중동(-28.5%)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아시아(5.6%), 유럽(40.8%), 북미(1.0%)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

품목별 수출동향

[승용차]
프랑스(291.8%), 슬로베니아(91.6%), 콜롬비아(4,236.8%)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23.8%), 아랍에미리트 연합(-74.0%), 호주(-9.5%)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아연도강판]
멕시코(16.0%), 미국(29.0%), 영국(1.3%)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인도(-15.9%), 태국(-1.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원동기]
미국(108.7%), 중국(59.1%), 싱가포르(25.1%)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러시아(-16.9%), 아랍에미리트 연합(-34.7%)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대륙별(국가별) 수출동향

수출 1위 품목은 승용차(8,400만 달러, -23.8%)이며, 수출액 10위권 내 품목 중 항공기부품(21.4%), 원동기(108.7%), 주단강(112.2%), 전동기(61.4%) 등의 수출이 증가

수출 1위 품목은 기타플라스틱제품(800만 달러, 117.2%)이며, 수출액 10위권 내 품목 중 원동기(59.1%), 밸브(190.5%), 인쇄회로(11.5%) 등의 수출이 증가

수출 1위 품목은 어육(1,000만 달러, -3.3%)이며, 수출액 10위권 내 품목 중 항공기부품(21.5%), 원동기(46.2%), 기타어류(8.4%) 등의 수출이 증가

부산 수출입 현황(총괄)

5월 부산은 당월 수출액 기준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위, 수출증가율 기준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기록. 강원(62.8%), 대전(58.2%), 세종(52.6%)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경남(-27.0%)의 수출은 감소

(단위:백만 달러, %)

구 분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7년 1~4월		2018년 1~5월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수 출	44,927 (13.1)	1,141 (4.2)	50,844 (13.2)	1,231 (7.9)	227,832 (16.2)	6,026 (2.4)	246,291 (8.1)	6,399 (6.2)
수 입	39,288 (19.0)	1,253 (6.1)	44,290 (12.7)	1,294 (3.3)	193,675 (21.6)	5,977 (4.7)	220,091 (13.6)	6,457 (8.0)
무역수지	5,639	-112	6,554	-63	34,157	49	26,200	-58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자료: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이하 동일)

베트남 무역사무소(하노이)

베트남 부동산, 앱으로 진출한다!

ㅇ고사양 스마트폰 찾기 시작한 베트남 소비자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요도 진화
- 현재 운영되는 베트남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및 현지 유명 부동산 웹사이트들의 연동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기를 종합했을 때, 베트남에서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전으로 분석됨
- 현재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는 호찌민시와 하노이에 편향돼 있음. 이는 호찌민시와 하노이가 베트남에서 1인당 소득 및 인구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주거지 임대 수급 또한 이 두 도시에 집중된 까닭임.

ㅇ한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1년 새 베트남에서 업계 2위
- 우리 기업이 개발해 베트남 시장에서 '현재' 운용되는 부동산 관련 모바일 앱은 Hello Rent(개발사 Hello Soft, 베트남 출시연도 2016년), VangVang(ZEROWEB, 2017년), Rent Express(Passion Fruit, 2017년) 등임.
- Rent Express는 Chợ Tốt (쩌똣)을 이어 베트남 부동산 모바일 앱 분야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음. 쩌똣이 다양한 물품을 아우르는 베트남의 대표 'C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Rent Express의 성과는 꽤 괄목할만함.
- 참고로, 한국인 개발자 및 투자자가 연관된 부동산 모바일 앱은 이전에도 꾸준히 등장했지만, 시장에서 인지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들이 대부분임. 이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현재에도 그러하듯) 소비자의 수요를 개척하고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마케팅 투자비용이 끊임없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ㅇ더 좋은 스마트폰 찾는 베트남 소비자 따라, O2O 모바일 플랫폼도 성장 중
-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 및 인터넷 품질이 꾸준히 제고됨에 따라,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고사양 스마트폰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임. 이는 베트남 대도시 지역에서 Foody(음식 배달), Grab(차량 공유)과 같은 O2O 모바일 플랫폼이 성장하는 토대가 됐음.

ㅇ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과 브랜드 성장 기회 주어진 시장이지만, 시장이 성숙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함.

(출처 : KOTRA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CCTV 시장동향

* 영상감시시장, 2022년까지 연평균 12.4%씩 성장 전망
* 중국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 치열

ㅇ 최신 베트남의 CCTV 수입규모는 통계 부재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6년 기준 베트남은 약 6억 달러를 수입함.
-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30%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순임(HS Code 8525.80기준이며, HS Code 분류에 따라 실제와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최근 3년간 베트남의 대한국 CCTV 수입규모는 약 2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임.

ㅇ(관세율) 베트남의 녹화용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CCTV 등에 대한 MFN 관세율은 10~15%이며, 우리 기업들은 한국-베트남 FTA를 통해 0~9%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역내 제품에 비해 관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이를 유의해야 함.

ㅇ(인증) CCTV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증은 없으나, IP 카메라와 같이 카메라 자체에 웹 서버기능을 장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카메라의 경우 유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따라 유무선통신기기 관련 인증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됨.

ㅇCCTV를 비롯한 베트남 영상 감시시장은 베트남 건설 · 인프라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 교통 부문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은행, 금융, 오피스, 병원, 서비스업(호텔, 식당 등) 역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임.

ㅇ우리 기업들은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며 베트남 CCTV 시장 진출에 관심 가져볼 만함.

① 첫째, 공공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라
- 베트남 정부는 자국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대도시 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임. 호찌민시의 경우, 범죄우발지역(crime hotspot)을 중심으로 CCTV를 집중 설치해 범죄발생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봤으며 CCTV 설치를 지속 확장할 것을 주문함.
-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과 훼(Hue) 역시 공공 안전 확립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늘릴 계획임.

② 둘째, 현지 유망 박람회에 참가하라
- 안전 보안장비 및 시스템 관련 현지 유망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 역시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임. 베트남은 이와 관련해 매년 Secutech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6~18일까지 3일간 호찌민시 SECC에서 열릴 예정임.

③ 셋째, 현지의 유통 · 판매망을 잘 활용하라
- 베트남 내 수요가 높은 가정용 · 사무실용 · 상점용 CCTV의 경우, 일반 개인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빈도가 높음. 따라서 유통망과 판매대리점을 많이 보유한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이 베트남 내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됨.
- 참고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CCTV를 구매할 시 설치 및 A/S가 다소 까다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우리 기업들은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함.

(출처 : KOTRA 하노이 무역관)

미국 무역사무소(LA)

미국 전기오븐 및 조리용 기기 시장동향

ㅇ 미국의 주방용품 및 조리기구의 오프라인 매출은 총 16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시장은 지난 6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됨.

ㅇ 최근 전기오븐 및 조리용 기기 시장은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가스레인지를 인덕션 스토브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남.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7,440만 가구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3,990만 가구를 압도하며, 전기 레인지가 가스 레인지를 대체하는 주류 품목으로 부상함.
- 2017년 기준 한국은 총 7,675만 달러의 주방 조리 기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수치임.
- 한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산 주방 조리기구의 5.7%의 비중을 차지하며 현재 4위 수입국임.
- 최근 3년간 한국산 주방 조리기구 수입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임.

미국 가공식품 시장동향

ㅇ미국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7년 3,776억 달러를 기록함.

- 미국 가공식품 시장에서 최근 성장 폭이 두드러진 품목은 제과류, 과자, 소스류, 스낵, 비스킷/바/과일스낵 등으로 2012-2017 5년간 10% 이상 성장을 보임.
- 미국의 대 한국 기타 조제식료품 수입액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3.7% 성장한 4천만 달러를 나타냈으며 점유율은 1.8%로 14위를 차지함.
- 미국 가공식품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며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1.5% 미만의 시장만을 점유함.
- 가공식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Frito-Lay North America, Inc.로 전체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The Kraft Heinz Company(5.1%), General Mills Inc.(2.4%) Hershey Company(2.4%), Mars Wrigley Confectionery(2.3%) 등이 뒤를 잇고 있음.

ㅇ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Non-GMO, 공정거래, 환경친화 등의 이슈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위해 USDA Orgnaic Seal, Non-GMO 인증마크 부착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도 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 필요함.

ㅇ미국 식약청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제조업체의 제조 과정을 수입업자가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미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에 앞서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미리 규제 준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미국 가스 석유 시추장비 동향

ㅇ2018년 미국 가스 석유 시추장비 산업의 총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34억 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2023년 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임.

ㅇ미국 현지 생산의 증가와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지속적인 동일한 생산량은 결국 2014년 말부터 유가의 가격의 폭락에 큰 원인이 됨.

- 2018년 까지 업계의 매출은 연간 13.6% 감소하여 1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2018년 수입액은 5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수요의 5.1%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캐나다는 현재 미국 가스 석유 시추장비 수입의 34.5% 를 차지하는 상시 산업 수입국이며 중국(19.1%), 영국(8.4%) 그리고 멕시코(8.3%)가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이 값싼 원재료 및 노동비용으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산업은 값싼 가격 보다 품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품질 제품이 경쟁력을 유지 할 것임.

ㅇ2023년까지 석유 가스 시추 장비의 성장은 계속 될 것

- 경제 성장 및 산업 발달로 인해 석유 가스 시추 장비 시장은 당분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사가 적은 점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다면 시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 무역사무소(칭다오)

중국 온라인 간식시장 동향

ㅇ 간식산업은 중국온라인 식품판매 중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2017년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임

- 간식 종류별 온라인 판매액에서 볼 때, 과자, 케이크, 육포의 판매 점유율이 가장 높음
  · 증가율 또한 기타종류들보다 높으며, 그 중 과자의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음.
  · 견과류와 말린 과일류의 판매액 점유율은 나머지 품종들의 평균(10.0%)보다 높으나,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포화상태에 있음.
- 온라인 간식소비자의 연령분포로 볼 때, 온라인 간식시장의 주요 소비층은 23~28세의 성인으로 밝혀짐.
  · 특히 현재 20대 연령층을 주도하고 있는 주링허우(90后: 1990년 이후 출생자)가 온라인을 통한 간식 소비를 선호함.
  · 최근 19~22세 성인의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ㅇ 온라인 간식시장의 5대 키워드

- 첨가제는 적게, 포장은 작게, 조합은 많게
- 맛은 맵게, 그리고 다양하게 / - 다양한 특산 간식을 더욱 쉽게
- 유명인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 - 유통기한은 더욱 짧게

시사점

ㅇ점점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건강한 간식을 지향하고 있음.

ㅇ포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조사에 따르면, 43%의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소형 포장된 제품을 선호 및 구매한다고 밝힘
- 59%의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포장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목을 끄는 창의적인 포장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음.
- 간식시장은 추운 계절이나 세일 기간에 성수기를 맞이함.
  · 간식시장은 사계절 중 주로 추운 날이나 휴일이 많은 계절에 성황을 맞으며, 일정한 계절성을 띔.
  · 관련 기업은 이를 반영해, 추운 계절이나 세일 기간을 공략해 마케팅을 진행해야 함.

중국 주요 주방가전 시장동향

ㅇ2010년 중국 주방가전 시장규모는 815억400만 위안에서 2015년 1140억9000만 위안으로 증가

- 대형 주방가전 시장규모는 536억5400만 위안에서 732억5000만 위안으로 증가
- 소형 주방가전 시장규모는 161억700만 위안에서 256억5400만 위안으로 증가
- 기타 주방가전 시장규모는 117억4300만 위안에서 151억8700만 위안으로 증가

시사점

ㅇ고성능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 증가

· 2017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분당 17㎥ 이상의 환기량을 가진 고성능 주방환풍기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 이보다 낮은 성능의 주방환풍기 판매액은 계속 하락함.

·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음식이 많은 중국 음식 특성상 현지 소비자들은 고성능 주방환풍기를 선호함.

· 식기세척기는 8인용 이상 제품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57%를 차지함. 음식 종류가 많고 그릇의 크기가 큰 현지 특성상 수용량이 큰 식기세척기가 인기가 많음.

·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이 강해지고 건조 기능이 추가돼 나오는 추세이며, 선두 브랜드인 지멘스와 메이디는 대용량 식기세척기에 주력

- 스마트, 빌트인 제품이 주류를 이루는 현지 시장

· 2017년 주방환풍기 시장에서 자동 필터 세척기능, 모션인식 기능이 탑재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약 29%를 차지

· 현지 대부분의 가스레인지에 자동 소화 장치와 가스 누출 경보기 탑재, 스마트폰과 연동해 제품을 원격제어하며 제품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2017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빌트인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 전체 판매액의 84.5%를 차지

· 빌트인 식기세척기 시장점유율은 약 33%이나 판매 가격이 높아 매출액이 일반 식기세척기의 매출액을 추월

· 우리 기업은 스마트 제품에 주력하는 한편 현지 부동산 기업이나 가구 기업과 협력해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본 무역사무소(오사카)

일본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 다기능·고기능성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일본시장 진출해야

ㅇ시장규모 : 2017년 공기청정기 시장은 538억7000만 엔으로 금액면으로 소폭 감소를 보이나 수량은 전년대비 4.8% 증가함.

- 2018년 시장규모는 약 539억2600만 엔으로 예상되며 소폭 성장할 것으로 관측됨.

ㅇ일본은 매년 2월부터 5월 초에 걸쳐 증가하는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와 영향은 적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PM2.5 황사 등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함.

ㅇ최근 가습기능, 제습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활발. 이는 일본의 기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봄에는 화분증 방지를 위해 가습기능을 사용하며, 여름에는 긴 장마와 습한 기후에 따른 제습기능을 필요로 함.

ㅇ 다기능 고사양 제품 인기 : 선풍기 및 온풍기 결합기능 제품, Wifi로 공기오염도 상태 파악 가능한 제품이 인기

- 반면 일본 국내제조사 제품은 가습기능을 추가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독자 음이온기능 제공 중임.
- 또한 최근 2~3년간 디자인을 중시한 가전 벤처기업(Balmuda, Cado 등) 공기청정기가 인기

시사점

ㅇ 가전제품시장 진입은 어려우나 최근 벤처기업의 상승세로 고기능성 제품 시장진입 가능함.

- 일본 메이저 가전제품 업체(파나소닉, 히타치 등) 및 해외업체(다이슨)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최근 벤처기업들의 고가제품 또한 수요가 존재함.
- 공기청정 및 가습·제습 기능이 겸비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기청정 기능에 특화된 한국 제품과는 별도 제품으로 시장진출을 꾀해야 함.

ㅇ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 한국에서 검증된 필터기술 부품 등 수출 가능성 높음.

-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OEM 제조 역수입, 미국, 독일의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 다음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는 한국산에 대한 인정이 바탕이 된 것임.
- 한국 내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필터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바, 신기술로 일본시장에 대한 계속적 공격이 필요함.

(출처 : KOTRA 도쿄무역관)

부산시 수출기업 대상 홍보 및 안내 자료가 있으신 경우 이메일(mtm2107@korea.kr) 또는 유선(☎051-888-4805)연락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는 日, 최근 주목받는 제품은?

* 초고령화 사회의 日, 최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급증
* 운전실수를 방지해주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이 인기

○日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일으키는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따른 차량사고가 증가하면서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운전보조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제품은 페달조작 실수로 인한 급발진을 방지해주는 장치로, 페달 위치를 조정해주거나 엑셀 밟기를 감지해주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음.
- 또한 운전자의 얼굴을 모니터링하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 경고음을 내는 장비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임.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시장에 출시, 기술 발전에 따라 참신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출처 : KOTRA 오사카무역관)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2017년 일본의 화장품(HS Code 3304) 총 수입액은 12억3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5.8% 증가함.
- 2017년 기준 한국은 프랑스(4억4000만 달러), 미국(2억1000만 달러)에 이어 제3위 대일 화장품 수출국임.
○최근 일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패션, 뷰티 분야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화장품은 대일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로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경제신문의 설문 결과, 일본 10대 여성의 패션스타일 참고국가 1위는 한국으로 조사됨.
- 한국 화장품의 대일수출실적 추이: 1억1300만 달러(2015년) → 1억5400만 달러(2016년) → 1억9400만 달러(2017년)
○일본 소비재 분야 전반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 소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응한 상품이나 마케팅이 일본 시장 개척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화장품시장에서 비교적 새로운 영역에 해당하는 남성용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되는 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출처 : KOTRA 후쿠오카무역관)

중국 무역사무소(상하이)

공신부, 중국 제조의 발전 방향 제시

《단점 보완》 스마트 제조 공급 능력을 제고하고, 스마트 제조 핵심 설비 및 공업 소프트웨어 시스템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
《응용 추진》 스마트 제조 시스템 솔루션 제공업체를 적극 양성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스마트 제조 관련 기술적 장벽과 비용 문제를 해결
《기반 공고화》 스마트 제조 표준 제정·개정 및 보급·응용 작업을 가속화하여 스마트 제조 표준 체계를 완비
《개방 확대》 기존 양자·다자 대화 기제를 확대하고 스마트 제조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하며, 더욱 많은 국가, 기업, 기구가 '중국제조2025'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국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공동 추진

국무원 판공실, 기업 설립 시간 단축 의견 발표

《신청 절차 변경》 기업 설립 신청자가 여러 차례 각 부처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에서 한 차례 서류를 제출하고 부처 간 이를 공유하여 동시 처리함으로써 기한 내 처리 완료하는 절차로 변경
《등기 절차 간소화》 기업 등기 시 전과정 전자화를 추진하고, 기업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업무 처리 시간을 업무일 5일 이내로 단축
《영수증 발급 절차 개선》 신설 기업이 최초로 영수증 발급 신청 시 처리 시간을 업무일 2일 이내로 단축
《사회보험 등기 절차 완비》 기업의 사회보험 등기와 근로자보험 가입 등기 업무를 연계하여 인터넷상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시진핑 주석, 과학기술 발전 강조

(현 황)
1.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현대화 경제 체제 건설
2. 자주혁신 능력 제고
3. 과학기술 체제 개혁 추진
4.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5. 혁신 발전을 위한 인재 기반 공고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현대화 경제 체제 건설》
○정보화, 스마트화를 지렛대로 삼아 신동력을 양성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 간 융합을 촉진하며, 중국 산업이 전세계 가치사슬의 중고급 단계로 도약하도록 노력
《자주혁신 능력 제고》
○자주혁신은 중국이 세계 과학기술 선두가 되는 필수 요소인 바, 핵심적인 기반 기술, 독보적인 선진 기술, 현대 공정 기술, 혁신 기술 등을 확보하여 주도적인 혁신·발전 추진
《과학기술 체제 개혁 추진》
○과학기술 분야는 부단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바,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사상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의 기능을 분명히 설정하여 혁신에 대한 열정을 제고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자주혁신은 개방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국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심화 추진하고 국제 사회의 혁신 자원을 적극 이용하며, 협력 상생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발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인류 건강, 기후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에 공동 대응
《혁신 발전을 위한 인재 기반 공고화》
○혁신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인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편적으로 논문, 특허, 자금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현상을 개혁하며, 인재 양성, 재능 발휘, 상호 경쟁 등에 도움이 되는 인재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

참여기업 모집 안내(8월)

사 업 명	분야	선정	주요내용
하노이 국제기계박람회	기계	10개사	전시회참가 (10.16~10.18)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부산시 통상진흥과

2018 동남아 바이어 초청 상담회

중국의 내수화 전략으로 신흥시장 진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포스트 차이나로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주요국가 바이어를 초청하여 지역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사 업 명 : 2018 동남아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기간 : 18. 7. 2(월) ~ 7. 4(수), 3일간
○단체 상담회 : 18. 7. 3(화)
○상담품목 : 소비재/ 산업재 종합품목
○참가규모 : 동남아 바이어 40개사, 부산소재 중소기업 125개사
○주요내용 : 1:1 비즈니스 상담 추진
○문 의 :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사업본부(☎051-600-1722)

2018 남미 무역사절단 파견

○사 업 명 : 2018 남미 무역사절단
○파견국가 : 페루(리마), 콜롬비아(보고타)
○파견시기 : 18. 9. 9(일) ~ 9.16(일)
○파견품목 :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산업기계
○파견규모 : 파견품목을 취급하는 지역기업 10개사
○주요내용 : 남미 주요 국가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 추진
○문 의 :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사업본부(☎051-600-1722)

글로벌 스타트업 IN-N-OUT 프로젝트 부산캠프

○사 업 명 : 2018 글로벌 스타트업 IN-N-OUT 프로젝트
○기간/ 장소 : 18. 7. 4(수) ~ 7.13(금)/ CENTAP
○참 가 : 베트남 스타트업(5개사) 및 부산지역 스타트업(9개사)
○주요내용 : 국내진출 교육, VC 멘토링, IR 데모데이,
부산-베트남 스타트업 매칭 및 교류 등
○문 의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051-320-3525)

아시아 비즈니스 스쿨 운영

신흥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지역 전문가를 초빙해 시장환경 및 마케팅 전략 강의, 對중국 수출기업의을 위한 품목별 심층 컨설팅 실시

○기 간 : 18. 8. 13. 14, 16(3일), 총 18시간
○장 소 : 부산경제진흥원
○사업내용 :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 마케팅 전략 및 컨설팅
○참가규모 : 150명(1일 50명)
○문 의 :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사업본부(☎051-600-1728)

중국 지난 한국우수상품전

스타트업 등 수출초보기업 및 지역기업의 對중국 수출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과 공동으로 전시회 개최

○개최기간 : 18. 7. 6(금) ~ 7. 8(일), 3일간
○장 소 : 산동성 지난시 순경국제컨벤션센터
○개최규모 : 200개사 230개 부스
○참가기업 : 부산지역 70개사
○주요내용 : 공동부스 운영, 1:1상담회, 포럼, 창업토크쇼 등
○문 의 : 벡스코 전시사업1실(☎051-740-7418)

「GTI 제6차 지방협력위원회」 참가

두만강 유역 한 · 중 · 러 · 몽 4개국 국가 간 경제협의체인 GTI의 지방도시 차원 협력사업 발굴과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 참석

○기간/ 장소 : 18. 7.12(목) ~ 7.14(토), 일본 돗토리현
○참석대상 : GTI 지방협력위원회 회원도시 등
회원도시▷(한)부산시, 강원도, 제주도 / (중)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내몽고자치구 /(몽)도르노트주, 헨티주, 수흐바타르주, 셀렝게주 / (일)돗토리현
○회의내용 : 돗토리 선언, 신규회원가입 승인(잉커우시) 등
○주최/ 주관 : 광역두만개발계획 지방협력위원회

2018 아프리카 유통망진출 지원사업

○사 업 명 : 2018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소비재 대전
○개최기간 : 18. 11.28(수) ~ 11.29(목)
○지원대상 : 소비재 제조 중소업체
○주요내용 : B2B상담회, 디지털마케팅, 복합관 구성
○문 의 : KOTRA 부산지원단(☎051-740-4149)

부산디자인센터

베트남 유통MD 교류회 개최

부산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베트남 롯데 백화점·롯데마트 푸드코트 입점 상담진행 및 현지 투자 파트너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ㅇ개최기간 : 18. 7.27(금) ~ 7.29(일), 3일간
- ㅇ개최장소 : 베트남 호치민 롯데마트 고밥(Gò Vấp)점
- ㅇ참가기업 : 지역 프랜차이즈기업 10개사
- ㅇ행사내용 : 유통MD 입점 상담진행 및 현지투자 파트너 1:1 비즈니스 상담회
- ㅇ문 의 : (재)부산디자인센터(☎051-790-1025)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FTA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교육

지역 기업들의 FTA활용과 원산지관리능력 배양 및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안내

- ㅇ일 시 : 18. 7.19(목) 14:00~17:00
- ㅇ장 소 :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 ㅇ대 상 : FTA활용 업체 및 관심기업 임직원 60여명
- ㅇ주요내용 : FTA활용 요령,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전략 등
- ㅇ문 의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051-993-3300)

2018 대학생 무역캠프(부산)

무역실무 교육, 실전 무역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실제 무역을 경험하는 국내 유일 대학생 무역특화 체험 프로그램

- ㅇ기 간 : 18. 7.24(화) ~ 7.27(금), 4일간
- ㅇ장 소 :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 ㅇ대 상 : 전국 대학 재(휴)학생 40여명(대학원생, 비전공자 포함)
- ㅇ주요내용 : 현업 무역인의 무역실무 강의 및 실제 수출실습
- ㅇ참 가 비 : 4만원 (수강료, 교재비, 중식비 포함)
- ㅇ문 의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1566-5114)

부산시 통상진흥과

동남권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

부울경 동남권 지자체 및 중진공 공동으로 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 ㅇ일 시 : 2018. 6.28(목)
- ㅇ장 소 : 부산 롯데호텔
- ㅇ참가기업 : 부산 57개사, 경남 30개사, 울산 17개사
- ㅇ초청 바이어 : 싱가폴등 11개국, 18개사(27명)
- ㅇ주요내용 : 초청 해외바이어와 동남권 기업간 1:1비즈니스상담회 등
- ㅇ문 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051-740-4130~2)

부산 중소벤처기업 CIS 무역사절단 파견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CIS(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진출 시장개척 지원

- ㅇ기 간 : 18. 6.12(화) ~ 6.18(월), 5박 7일
- ㅇ국 가 :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카자흐스탄(알마티)
- ㅇ주요내용 : 바이어상담회, 상품로드쇼 등
- ㅇ품 목 : 종합(화장품, 식품, 완제품기기 등)
- ㅇ지원규모 : 8개사
- ㅇ문 의 : (사)부산벤처기업협회(☎051-343-0109)

「모스크바 국제석유가스전시회」 참가

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플랜트 기자재의 러시아 · CIS 시장 진출지원

- ㅇ기 간 : 18. 6.18(월) ~ 6.21(목), 4일간
- ㅇ장 소 :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Crocus Expo in Moscow, Russia)
- ㅇ품 목 : 석유·가스 플랜트 제품/ 기자재/서비스 일체
- ㅇ지원규모 : 8개사
- ㅇ문 의 : (재)부산경제진흥원(☎051-600-1726)

2018년 중국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참가

2018년 29회를 맞이하는 중국 흑룡강성 최대의 무역상담회 및 전시회로 중국 및 러시아 시장 최신동향 파악

- ㅇ개최기간 : 18. 6.15(금) ~ 6.19(화), 5일간
- ㅇ장 소 : 하얼빈국제회의전람스포츠센터
- ㅇ개최규모 : 20개국, 2,500개사 참가, 150,000명 참관(2017년 기준)
- ㅇ참가기업 : 부산지역 10개사
- ㅇ주요내용
  - 비즈니스상담 및 수출계약 논의 등
  - 부산시 테크노파크 -하얼빈시 과학기술국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ㅇ문 의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051-320-3522)

조선해양 대기업 연계 조선기자재 해외진출

조선해양분야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ㅇ기 간 : 2018. 6.17(일)~6.20(수), 4일간,
- ㅇ국 가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 ㅇ지원규모 : 지역 조선기자재 전문 제조기업 10개사
- ㅇ사업내용 : 극동지역 바이어상담회, 조선소 방문
  ※ 사업연계 대기업 : ㈜디섹
- ㅇ문 의 :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70-4493-4183)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美, 이란 무역제재 관련 설명회

최근 美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에 따른 이란무역제재 주요내용 및 대이란 수출업계의 대응방안 안내

- ㅇ일 시 : 2018. 6. 11(월) 15:00~17:00
- ㅇ장 소 :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 ㅇ참 석 자 : 부산의 대이란 수출기업 및 관심있는 임직원 72명
- ㅇ주요내용 : 美 이란무역제재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등
- ㅇ문 의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051-993-3300)

글로벌 물류 해법 세미나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한/중/일 수출입 물류방안 제언, 지역별 최신 물류 트렌드 등 소개

- ㅇ일 시 : 2018. 6. 26(화) 14:00~18:00
- ㅇ장 소 :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 ㅇ참 석 자 :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40여명
- ㅇ주요내용 : 최신 물류정보 및 글로벌 물류 성공사례 등
- ㅇ문 의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051-993-3300)

(주)코노텍

㈜코노텍은 1990년 설립한 이후, 디지털 온·습도 컨트롤러, 디지털 판넬메타 등 각종 컨트롤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2002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받았으며,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보다 활발한 수출을 위해 영업과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인력의 약 20%를 배치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거의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저마력 콘트롤 판넬 '이지엔', 히터제어기, 칠러제어기 등이 ㈜코노텍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제품개발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수출망 역시 넓고 다양하다. 중국, 유럽, 중동, 동남아, 남미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판매망을 확대해 현재 50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른 ㈜코노텍의 목표는 동유럽을 포함한 러시아, 북미, 호주 등 진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영업망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자 한다. 아직 진출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회나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7 네덜란드.독일 마리타임 소싱플라자에 참가했다. 새로운 시장의 바이어를 직접 만나 회사를 소개하고 신제품도 소개할 기회가 되었다. 해외규격인증으로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었다.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해외전시회와 상담회는 실제로 직접적인 거래 성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판로개척의 발판이 되어 회사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액 역시 오름세다.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으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업 구도를 확보하려고 한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수출 100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활동을 통해 바이어와의 긍정적인 관계유지는 물론, 시장 내에서 바이어들의 니즈를 파악해 시장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코노텍의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이다.

수출현황

수 출 액	$900,000
주요수출국가	베트남, 독 일, 태 국, 필리핀

향후 5년 목표는

2022년까지 해외지사 2개를 설립하고, A/S가 없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보다 많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 바이어들의 니즈를 완벽히 파악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액도 500만 불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엘리온(전문무역상사)

(주)엘리온은 2007년에 설립된 이후, 스테인리스 등 철강 금속 소재를 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전체 매출액의 95%는 해외 수출액이 차지한다. 해당 국가 바이어들에게 제품의 생산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매주 업데이트해 전달해주는 꼼꼼한 서비스 덕분에 여러 해외 업체에서 (주)엘리온을 수출업체로 선택하곤 한다. 해외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 우연히 카자흐스탄 시장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전시회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다.

(주)엘리온은 지난해 기준으로 2년 연속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전시회를 참여했다. 2016년에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분석하는 차원에서 참가한 것이라면, 2017년은 실질적인 수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참여했다. 2016년과 다르게 수출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품 가격은 물론이고, 제품을 수출할 항로까지도 탐색했다.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카자흐스탄 바이어들 역시 잇따라 (주)엘리온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엘리온 측 또한 최종 수출계획을 확정한 후에 카자흐스탄과의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엘리온은 2017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전시회를 통해 국내에서 자료로 분석한 카자흐스탄 현지 상황을 실질적으로 면밀히 비교해보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번 카자흐스탄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된다면 다음 수출시장은 미주지역을 겨냥할 생각이다.

미주 시장을 택한 것은 타 지역의 추가 발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주)엘리온의 제품성을 인정 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바이어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전세계 바이어 300곳에 수출을 성공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우고 있다.

수출현황

수 출 액	$4,934,786
주요수출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향후 5년 목표는

저희 (주)엘리온은 현재, 3개 국가에 있는 영업사무소 및 대리점을 좀더 확대하여 10곳 정도 더 늘릴 계획이며, 수출금액 천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